

Daily Auto Check

2020. 5. 26(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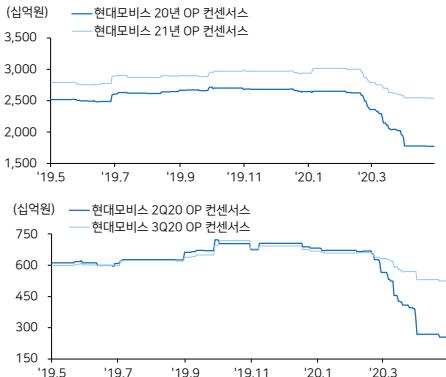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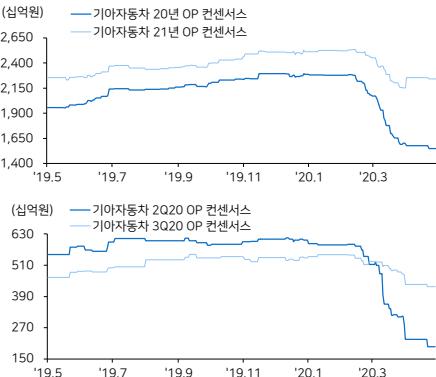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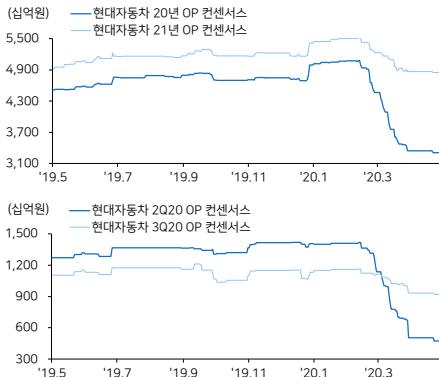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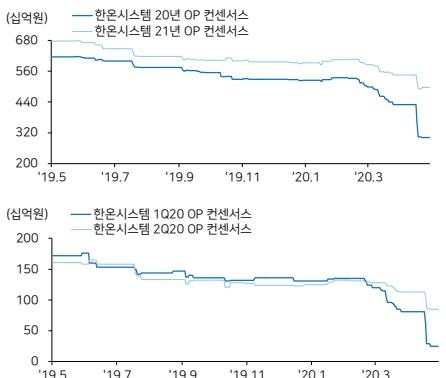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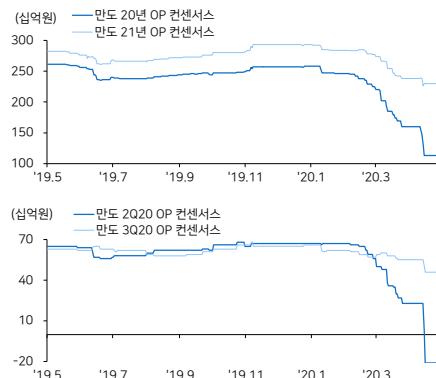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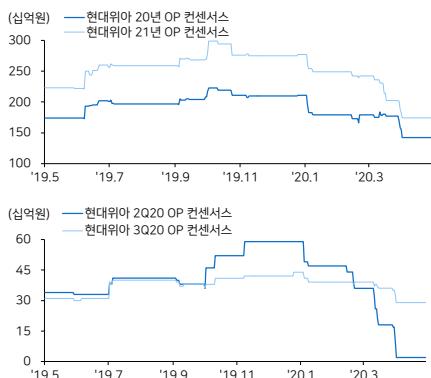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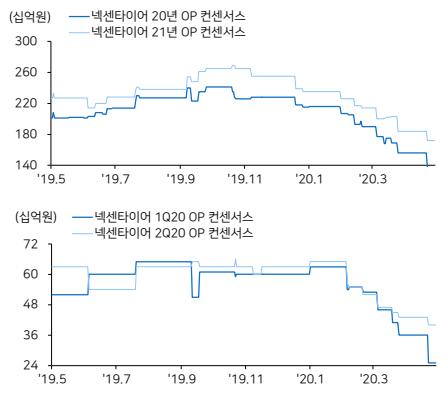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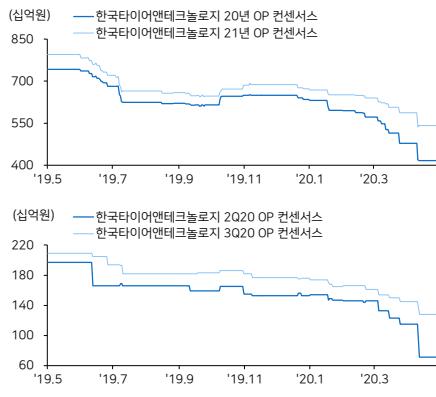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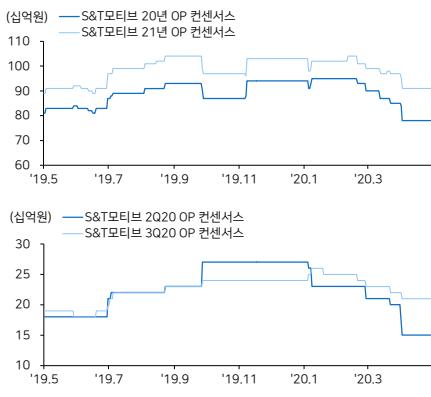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멕시코 자동차산업 생산 재개…기아차 멕시코 26일 재가동 (연합뉴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멈춰둔 멕시코 내 원성차와 부품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 중. 기아차 멕시코는 25일(현지시간) 가동 준비를 거쳐 26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힘.
<https://bit.ly/36ryTwY>

기아차 광주 2공장, 수출 악화로 내달 5일까지 휴업 (파이낸셜뉴스)

수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소프티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6월 5일까지 제2공장의 문을 닫기로 함. 기아차는 수출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애초 25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휴업을 내달 5일까지 연장.
<https://bit.ly/2ZCSJg2>

세계 자동차공장 되살아난다'…생산공장 가동률 28.8%→83.5% 상승 (뉴스1)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한 달만에 28.8%에서 8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광장 기준 범율은 83.5%로 4월 중순(4월16일) 28.8% 보다 54.7%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
<https://bit.ly/2XkwVhd>

20분 충전, 500km 주행… 속도내는 '진짜 전기차' 전경 (조선닷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전기차 출시가 코로나 사태 등 여려 변수로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음. 이 때문에 올 한 해는 일찍이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한 테슬라의 독주가 지속될 것인 얄망이 나옴.
<https://bit.ly/2M0bGRY>

현대차, 중대형 SUV 하이브리드 …북미·유럽 출격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카(SUV) 신차로 하반기 북미·유럽 공략에 속도를 냈다. 하이브리드카(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등 라인업을 확대해 코로나19으로 변화한 소비자들의 성향에 대응한다는 전략.
<https://bit.ly/3d3Lxxg>

삼성전자·현대차, '구글세' 불돌..산업계 '외교 노력 시급' (파이낸셜뉴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10여개의 주요 업체들을 취재한 결과 모든 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여러 판촉물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보도.
<https://bit.ly/2B1WYHN>

中 자동차 업계 판촉품 난무…가격 경쟁 격화 불보듯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차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함.
<https://bit.ly/3d2T6o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설득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